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20>·끝

### “이 소식을 아신다면 ‘적양화 적양화’ 읊시다”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2통

<1> 삼가 편지를 받고서 요즘 법체가 만안(萬安)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러 위안이 되며 송축합니다. 나는 줄곧 침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홍(道洪) 수좌는 지난 가을에 원주 소임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해설다 음은 경봉 스님의 법거량에 대한 답이다).

운수 남자는 무엇으로 양식을 하느냐구요?--막(莫)

무슨 말로써 제법을 하느냐구요?-- 막(莫).

아우(경봉)도 가서 있을 처소가 있느냐구요?-- 막(莫).

이 세 개의 ‘막(莫) 가운데 하나의 막(莫)은 하늘도 덮고 땅도 덮음(蓋天蓋地), 하나의 막(莫)은 밝은 달 맑은 바람(明月清風)이며, 하나의 막(莫)은 산이 높고 물이 흐름(高山流水)이니, 이 소식을 아신다면 버들 꽃을 잡고 버들 꽃을 잡음(摘楊花 摘楊花)이 읊시다. 이만 줄이고 답사의 예(禮)를 갖추지 않습니다.

을해(1935년) 4월 초5일 한암 배사(拜謝)

경봉 스님이 세 가지 법거량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모두 ‘막(莫) 자를 써서 답하고 있다. ‘막(莫)은 금지사이다. 즉 쓸데 없는 알음알이는 피우지 말라는 뜻이다.

쓸데없는 알음알이 피우지 말고 공간 ‘적양화...’ ... 무애자재

그런데 ‘막(莫) 자를 써서 답하고는 다시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莫 가운데 一莫은 천지를 덮고(蓋天蓋地), 一莫은 밝은 달 맑은 바람(明月清風)이며, 一莫은 산 높고 물 흐름(高山流水)이니, 만일 이 소식을 아신다면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 버들 꽃을 잡고 버들 꽃을 잡다”라고 말하고 있다.

적양화 적양화는 조주(趙州)선사의 공안이다. 어떤 남자가 조주선사에게 하직을 고하자 조주 스님이 “부처님 계신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빨리 지나가서 3천 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야기하지 말라.” 하였다. 그 남자가 “그러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니, 조주선사가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라고 한 것이다. 버들 꽃(楊花)은

봄바람에 날아다니는 수양버들의 솜(柳絮)을 가리킨다. 옛날 중국에는 봄이 되면 어린 아이들이 봄바람에 날아다니는 버들 솜(柳絮)을 잡는 재미, 놀이를 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적양화란 자유자재함, 무심(無心)함, 무애자재(無碍自在)함, 무속박(無束縛)을 뜻한다고 보여 진다.

<2> 오래 그림던 차에 서찰을 보내주시니 어둠 속에서 밝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생략)

세 가지 법거량 대하여 답하겠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기상(衝天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邪)와 정(正)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邪)인가?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으니, 불조(佛祖)가 간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正)인가?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으니, 불조(佛祖)가 간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묻기를, “그대가 오히려 사(邪)와 (正)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걸렸는가, 네가 걸렸는가.”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물음은 첫 번째의 물음 중의 소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번거롭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쪼록 자제히 살피십시오.

을 2월 25일 (1929년) 한암(漢岩)

‘사’와 ‘정’ 분별심 관문 제시 첫번째 답속에 둘째 셋째 답도

이 편지 역시 경봉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경봉스님의 법거량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하늘을 찌르는 기상(衝天竅)에는 사(邪)와 정(正) 두 가지가 있다고 구분해 놓고는, 답은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답을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사(邪)와 정(正)이라고 하는 관문(關門), 즉 분별심의 관문을 제시하여 그 관문을 통과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의 관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답 속에 있다는 것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보시, 할수록 몸과 마음 채워져 남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돕는 것”

## 백진구 윤선주 부부

하루 수입의 반을 남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불자들에게 ‘보시’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실천의 문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동명한의원(경기 성남)의 백진구(52) 원장, 그리고 그의 함께 일하고 있는 그의 부인 윤선주(50) 씨는 하루 수입의 반을 많은 단체들의 후원금으로 보시하며,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 ‘쓰고 남는 것’ 말고 보시 먼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요.” 윤 씨는 작은 주머니 하나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보였다. 그 주머니에는 약 30 개 정도의 작은 메모지들이 들어있었다. 그 메모지에는 백 원장과 윤 씨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계좌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메모지에 적힌 단체들에게 일일이 폰뱅킹을 통해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낸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혀 있는 단체들에게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보낸다.

“살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는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실천하기 힘들다고 봐요. 보시의 참 의미는 ‘나눔’이고 참 나눔이란 있고 없고를 떠나 보시의 마음을 먼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보의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 중생수기득이익(衆生受器得利益)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먹기 힘들어요.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나누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라밀행인 것이지요. 부족하지만 서로 먹여 주려하면 극락인 것이고, 서로 자기만 먹으려 하면 지옥인 것이지요. 그래서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선에서 보시부터 하죠.” 이렇게 백진구 윤선주 부부는 한의원 수입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보시하고 있다.

### 불교대학 다니면서 불교에 눈뜨

“육바라밀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상호협조적인 보시행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로서는 가장 필요한 정진이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1998년 어느 날 이웃의 권유로 불교대학에 다

니게 된다. 윤 씨와 백 원장이 보시의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때부터다. 그때까지 윤 씨는 남편인 백 원장이 독실한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 씨의 남편 백 원장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불심을 보면서 자랐고, 대학교 시절에는 대학생불자연합회 활동을 하는 등 불심 깊은 불자였다. 하지만 백 원장은 자신의 종교를 부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종교를 지켜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윤 씨는 이웃에 사는 주부로부터 불교대학에 함께 다니자는 권유를 받게 된다. 허물없이 지내던 옆집 주부는 아예 윤 씨의 수강증까지 끊어왔다.

### 30여 단체에 매일 후원금 보내

현금 1천원~3천원, 쌀 보시도

수입의 반 후원금으로

불교대학 다니면서 ‘보시’ 하게 돼

‘보시공덕’ 인과는 ‘기복’과 달라

“내가 번 돈에는 많은 ‘인과’ 있어

모두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야”

자식도 모르게 ‘보시’ 실천

수강증까지 끊어온 터라 윤 씨는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웬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윤 씨는 옆집 주부와 함께 서울의 능인불교대학을 나가게 됐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남편으로 인해 늘 불교 언저리에서 살아왔던 윤 씨였다. 첫날 수업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은 윤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모두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첫 수업에서 구구절절 부처님이 가르침이 가슴에 다가왔다. 윤 씨는 이렇게 좋은 수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듣는 것은 아니다 싶어, 자신이 다시 수강증을 새로 끊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발심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옆집 도반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윤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

고 불교대학을 다녔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윤 씨는 누구보다 빠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경전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참선도 좋았고, 염불도 좋았죠. 왜 좀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럽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지 알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윤 씨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육바라밀의 보시를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 공부보다는 실천 중요성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막연하게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윤 씨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공부하고 육바라밀을 공부하면서 ‘보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된다. 나누는 삶, 보시아말로 남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채우는 신행이면서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윤 씨는 불교를 공부하기 이전에 명상수행을 꾸준히 해왔는데, 명상을 하면서 남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부처님의 연기법을 통해 그 실천이 보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윤 씨는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보시 공덕으로 인한 인과는 단순한 ‘기복’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됐다.

“이것(보시)만 잘 실천하면서 살아도 부처님 공부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전을 읽고 아는 것만이 진정한 공부이고, 그것이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공부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밖에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만큼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천 중에 가장 보람 있고 나와 세상이 동시에 풍요로울 수 있는 일이 ‘보시’라고 생각했어요.”

윤 씨는 자광원을 비롯해 주위에 있는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 현재의 삶에 모든 인과가

이렇게 윤 씨가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백진구 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부창부수(夫唱婦隨) 아니 부창부수(婦唱夫隨), 이심전심이



후원 단체들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들.



쌀 등 물품을 보내는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



후원 단체로부터 받은 감사패.

since 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Grid of 24 calendar pages with various Buddhist-themed illustrations and text. Includes a calendar for August 2015.

• 12절(벽결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 이상 @ 1,000 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결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 이상 @ 1,200 원 • 규격 : 30.5cm × 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 800 원 • 매수: 18장 @ 650 원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 600 원 • 매수: 16장 @ 450 원 • 규격 : 8.9cm × 9.5cm